

(사)한국포장협회
사무국 이전 기념식 개최
 제151차 이사회 가져

(사)한국포장협회(회장 김선창)는 지난 달 11일 협회 이사진과 회원사 대표, 자문위원을 초청, 협회 사무국 이전 기념식 및 제151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전 기념식은 김선창 회장을 비롯해 한용교 명예회장, 임동준 고문, 한규상 부회장 등, 초청자 모두가 참석해 테이프 컷팅식을 갖고 협회 사무국 및 포장시험실을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선창 회장은 “협회 사무국 이전과 포장시험실 설치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임원들과 회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협회는 포장진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포장시험실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IT캐슬에 1백26평 규모의 사무실을 분양받아 지난 9월 29일 이전, 이달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특히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포장시험실’을 마련, 장기적으로 회원사들에게 포장시험 수수료를 경감해주고 포장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장단체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업계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28개 업체가 발기, 설립된 (사)한국포



▲ (사)한국포장협회 사무국 이전 기념식 개최

장협회는 회원사들의 공동번영과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을 주도한다는 목적 아래 각종 사업을 추진, 출판 및 교육사업, 전시사업 등 포장관련 진흥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시험실 설치를 계기로 포장진흥의 메카가 될 전망이다.

협회는 현재 1백11개 회원사들이 가입된 정부공인 최대 민간 단체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울촌화학(주)
친환경 전분발포용기 출시
연매출 약2백50억원 목표

울촌화학(주)가 지난 5년간 개발해 온 친환경 전분발포용기를 개발, 상용화에 성공했다.

울촌화학의 친환경 컵라면 용기는 옥수수 녹말을 주원료로 해 환경호르몬이 나올 우려가 없으



▲ 울촌화학(주)이 출시한 친환경 전분발포용기

며 흠 속에서는 자연 분해된다.

또한 올해 2월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규제하고 있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를 소각시 배출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을 막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발포 폴리스틸렌 재질이나 종이 재질과는 달리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분을 발포 형태로 성형하기 때문에 종이, 펄프 용기보다 제품보관성, 열차단성이 우수하다.

울촌은 현재 포승공단에 연간 5천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소비자 반응 및 공정개선 등을 거친 후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방침이다.

울촌화학 관계자는 향후 2006년도에는 연간 3억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추가 제작 설치, 생분해 용기관련 제품의 연매출을 약 2백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연간 4억개 생산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국내외에 생분해 관련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해외수출 및 관련 제품도 생산할 예정이다.

LogisALL
20주년 기념행사 열려
와세다대학 명예교수 초청강연

LogisALL(대표 서병륜) 2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달 5일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열렸다. LogisALL은 표준파렛트와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물류기기 공동이용 시스템인 파렛트풀 시스템과 컨테이너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국가 물류표준화와 물류공동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번 LogisALL 창립20주년 기념행사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부 물류강연 그리고 제2부는 본행사인 LogisALL 창립20주년 기념식에 이어 제3부 기념공연을 행사를 가졌다. 또한 기념식장 앞에 전시장을 개장하여 LogisALL 20년 동안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별도 전시회도 마련됐다.

전시회에서는 LogisALL 20년의 연혁 및 물류 활동을 가능하게 한 35개의 물류센터 중 최대의 종합물류기지인 아산물류센터를 포함한 LogisALL 소유자산인 9개의 물류센터 전경을

소개했으며, LogisALL이 20년동안 구축해 온 파렛트풀 시스템, 컨테이너풀 시스템의 사용현장을 전시했다.

제1부 물류 강연을 맡은 다카오시 테루오 교수는 실천기에 들어가 성과를 얻고 있는 일본의 로지스틱스가 밸류체인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기업에서 구성할 수 있는 밸류체인 구축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병륜 사장님은 기념사를 통해 “LogisALL 20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에 응해 준 내·외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LogisALL은 앞으로 SCM 사업의 확장을 통해 신물류의 실현, 신물류의 개척자로서의 항상 고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뿔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 LogisALL 20주년 기념행사 열려